

“예술로부터 활력… 새로운 꿈과 자신감 찾았다”

광주예술인협회, 예술시민교육 ‘자기돌봄 1기’ 실시
치유문화예술 창작과정 호응…“관련 프로 확대 지속”

지역 예술인들이 광주문화재단의 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예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예술인협회(회장 김연화 조각가)는 예술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목표로, 예술이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삶에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중장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자기돌봄’이 지난 5월 7일 시작돼 매주 목요일 밤에 7회 열리고 8번째에 작은 발표회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마음을 가꾸고 예술로 성장하다’는 부

제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을 비롯해 도예, 테라리움, 스토리텔링, 전시회 등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구성됐으며, 참여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의 삶을 공감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하는 한편, 중장년층이 겪는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어려움을 예술로 치유하며, 참여자들이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광주예술인협회는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이번 프로그램이 ‘예술이 사람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술시민교육이



광주예술인협회는 중장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자기돌봄’이 지난 5월 7일 시작돼 매주 목요일 밤에 7회 열리고 8번째에 작은 발표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1기 결과 전시회 때 포즈를 취한 김연화 회장(왼쪽 세번째)과 회원들 모습.

지역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씨앗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자기돌봄’ 프로그램은 예술이 개

인의 자유를 넘어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지역사회 문화복지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앞서 미술 도예 테라리움 융합프로그램 ‘자기돌봄’의 작품발표회가 지난 6월 19일 성황리 열린 바 있다. 전시회보

다 작은 개념의 이때 발표회에서는 회원이 10명의 인물화 크로키 드로잉 도자 화본 테라리움 스토리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선보였다.

김연화 회장은 “참여자들이 오랜만에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꿈과 자신감을 찾았다. 예술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줬다는 등 반응이 있다. 대체적으로 참여자들이 높은 만족감을 보인다”면서 “예술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보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한 단체 30여곳의 전체 발표회는 오는 10월 31일 예정돼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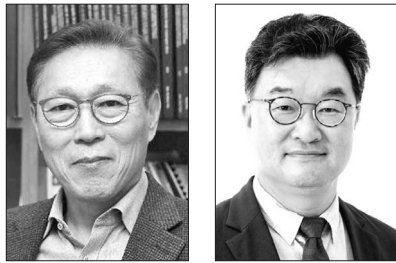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김태유

국립외교원장 김흥규 임명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

국립외교원장에는 광주출신 김흥규 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이 임명됐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하며 공학, 경제학, 산업 정책을 아우를 기술 경제 및 국가 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평이다.

국립외교원장에는 김흥규 현 아주대 정



김태유 김흥규

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광주 출신인 김 원장은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학술 연구와 교육, 정책 자문을 아우르는 깊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실전적 학자로 알려졌다. 이성호 기자 sole235@

전남대학교병원, ‘세계 친환경 병원’ 선정

비수도권 유일…온실가스 감축 등 ESG 경영 성과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진·사진)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발표한 ‘2026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병원(World’s Greenest Hospitals 2026)’ 평가에서 세계 34위에 오르며, 비수도권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뉴스위크가 글로벌 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와 함께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전 세계 60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 감축, 우수 보존, 효율적 폐기물 관리,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의료 운영 전반을 종합 심사해 최종 250개 병원을 선정했다.

평가 결과 전남대병원은 전 세계 우수한 의료기관들 중 종합 34위에 등재됐다. 국내 의료기관 중에서는 8번째로 높은 순위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형병원들을 제



외하면 지방 의료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전남대병원은 그동안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고도화, 자원 재활용 확대, 친환경 시설 개선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가치를 보건의료 현장에 적극 도입해 왔다.

특히 의료 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 인 처리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병원 내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병원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이 이번 국제적 평가에서 높게 인정받았다.

이성호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청렴과 친절로 신뢰받는 주거 서비스 제공”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CS교육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관리·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CS 교육’과 ‘청렴다짐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청렴하고 투명한 주택관리와 친절한 민원 응대를 통해 임주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고객만족과 청렴을 함께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일 교육에는 공사 직원과 임대주택 관리소장 및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임주민 중심의 서비스 마인드와 친절한 응대 태도를 함양하고,



광주도시공사 관리·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CS 교육’과 ‘청렴다짐 행사’를 실시했다.

이어 ‘청렴한 주택관리로 신뢰받는 도시공사’라는 슬로건을 제창하며 확고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현장 실무 적합성과 유용성이 높은 교육이라는 점에 크게 공감했으

며, 고객만족과 청렴을 함께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승남 사장은 “고객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민원 서비스 역량과 청렴 의식을 함께 높이

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속해 임주민이 체감하는 주거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농지 전수조사 효율·농업인 편의 높인다

농어촌공사·캠코, 드론·AI 데이터 협력 업무협약

농지대장·임대정보 연계로 농업인 행정 부담 완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 이하 캠코)와 드론·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조사기술 및 농지대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드론 기반 협업을 통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 136만 헥타르

(ha) 가운데 경기도 전역을 포함한 약 50만 헥타르를 드론으로 촬영한다.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공사 직원 128명이 직접 드론 촬영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휴경·무단 전용 등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 효율을 높인다. 촬영한 영상은 캠코에도 제공돼 국유재산 관리 고도화를 지원한다.

공사는 항공영상 기반 인공지능 시설물 탐지결과를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캠코가 보유한 국공유

지 드론영상과 인공지능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도 제공받아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의 위성영상과 농지대장도 연계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휴경 의심 농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분석한다. 공사는 관계기관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과학적 농지조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데, 공사는 국유농지를 이용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대장 데이터를 캠코와 연계한다.

그동안 국유농지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면 농업인은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캠코에 제출해



야 했다. 앞으로는 공사의 농지대장 데이터 연계로 해당 서류를 별도로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항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자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

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속건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품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레이터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6월 28일)

쥐 48년생 서두르지 말고 추이를 관망하자
60년생 도움이 되지 않으면 빨리 청산하자
72년생 귀하가 원하는 것을 일기엔 충분하다
84년생 술선수범하면 궁극적으로 따른다
96년생 과장이 너무 심하다 현실대로 하라

토끼 51년생 무모함이 피해를 부르기도 한다
63년생 지인의 도움으로 이익을 보리라
75년생 뉘면 뉘 만큼 소득이 있을 것이다
87년생 호트러진다면 회의가 클 수밖에 없다
99년생 요행수는 절대 금물이다

말 54년생 작은일에 만족해야 정신건강에 좋다
66년생 모임에서 과음하지 말고 매너 지키라
78년생 잘 진행되던 일이 실수로 어렵게 된다
90년생 지금은 먼저 도움을 받아야 함이라

돼지 57년생 욕심이 화를 불러오므로 욕심을 버려라
69년생 선후를 가려서 정확하게 따져보라
81년생 관재수가 아니면 물 부상을 당한다
93년생 직장 상사와의 다툼은 금물이다

소 49년생 인과응보의 세상 이치에 놀랄 것이다
61년생 지갑 속 많은 돈 넣고 나들이 가지 마라
73년생 귀인을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만난다
85년생 손해 보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라
97년생 그 약속이 절대 이행되지 않는다

황소 52년생 속 좁은 생각을 버려라
64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76년생 노력에 상응하는 열매가 맺는 면모다
88년생 금전이 들어올 운이므로 열심히 뛰라

양 55년생 집안 다툼이 관재수로 발전 할 것이다
67년생 최선을 다 한다면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
79년생 승진·영전 운이 있다
91년생 뒷사람 말을 귀담아들으면 득을 보리라

개 58년생 한 발짝 물러서 추이 지켜보라
70년생 헛소문에 속아 기뻐할 수도 있으니 신중
82년생 재산상의 이익이 있으니 열려 말라
94년생 내 것이 아니면 손대지 말 것이라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호랑이 50년생 가족들로 인한 경사가 있을 것이다
62년생 주의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74년생 주변에 시선에 왜매이지 말라
86년생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 것
98년생 이성에 마음 쓰지 말고 가족 신경 써라

뱀 53년생 둘 다 잡으려다 다 잃는다
65년생 전반적인 점점을 하자
77년생 부실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89년생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

원숭이 56년생 인식하는 각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68년생 떨어지지 않으려면 단단히 붙들라라
80년생 귀인이 찾아오지만 구설수 조심하라
92년생 연인하고 이별의 암시가 있다

돼지 59년생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71년생 문서에 숨어 있는 변수까지 감안하라
83년생 외출하면 귀인을 만날 수 있다
95년생 대학 기법에 따라 성과는 천차만별